'5·18민주화운동교육관' 위탁운영 선정 보류

심의위 "본래 목적과 안맞아"…재심의 주목

광주시 공모 방식 등 안일한 행정 도마위에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5·18 민주화운동 교육관. 지난 5월 국비 50억 원들 들여 완공된 2793.3㎡의 5·18 교육관(지하 1층·지상 4층)은 5·18 민중항쟁 교육·홍보 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어졌으며 체력단련실·강의실·기숙사·휴게실 등이 들어서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가 추진중인 '5·18 민주화운동 교육관' 위탁 업체 선정이 돌연 보류됐다. 심사 위원들이 교육관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무책임한 공모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변경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발전'을 위한 핵심 기능을 담당할 5·18 민주화운동 교육관에 대한 치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데 따라 빚어진 결과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교육관' 위탁 업체 선정 심의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위탁 업체 심사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교육관 위탁 운영에는 (사)5·18 구속부상자회가 광주 FC 싸커클럽·서구 시니어클럽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으로 참여 신청서를 냈다.

〈광주일보 11월 26일자 7면〉

현재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위탁 운영 방식으로는 5·18 교육관이 5·18 역사왜곡 및 폄훼를 막고 5월 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심의위원회 판단이다.

광주시가 위탁 업체 모집 공고에 포함한 '교육관 운영을 위한 지원금(운영비)은 없으며 수탁시설 수익금으로 운영'한다는 규정이 문제가 됐다. 이대로라면 선정된 위탁 업체는 매년 1억1000만원 이상(광주시 추정)의 운영비를 메우기 위해 5·18 교육관을 통한 수익 확보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본래 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게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점을 들어, 광주시가 운영비 지원 방침을 공모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재공모를 거쳐 위탁 업체를 선정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위탁 업체도 교육관 운영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김보현 광주시의원은 "광주시가 운영비 지원 없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공모 절차로는 5·18 교육관의 부실 운영이 불가피하다" 면서 "광주시가 5·18 역사왜곡 및 폄훼 세력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것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업체에 대한 가부(可否) 결정을 해줬다면 재공모라도 하겠는데, 선정 자체를 보류해 재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심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광주시의 입장을 반영, 29일 오후 2시 광주시청 2층 회의실에서 5·18 교육관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재심의를 열어 후보 업체에 대한 가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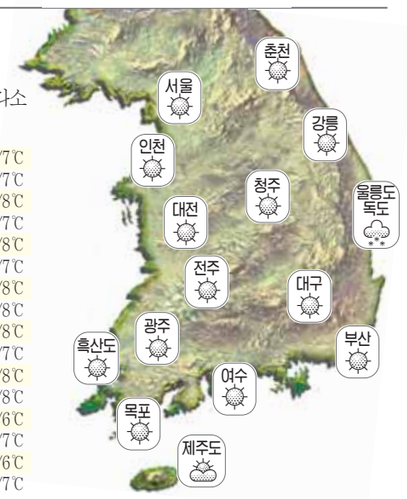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20분 / 해짐 17시 21분 — 달뜸 02시 56분 / 달짐 14시 30분

감기조심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위 다소 풀리겠다.

광 주	맑음	-2/7℃
목 포	맑음	-1/7℃
여 수	맑음	0/8℃
나 주	맑음	-2/7℃
완 도	맑음	-1/8℃
구 례	맑음	-2/7℃
강 진	맑음	-2/8℃
해 남	맑음	-2/8℃
장 흥	맑음	-2/8℃
순 천	맑음	-2/7℃
영 광	맑음	-2/8℃
진 도	맑음	0/8℃
전 주	맑음	-3/6℃
군 산	맑음	-2/7℃
남 원	맑음	-4/6℃
흑산도	맑음	2/7℃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0~2.5m
먼바다	서~북서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5m
먼바다	서~북서	1.5~2.5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먼바다	서~북서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먼바다	서~북서	1.5~2.5m

감기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증지수
높음	관심	높음

	밀물	썰물
목포	10:50 / 23:01	03:53 / 16:32
여수	06:16 / 18:14	12:12 / --:--

◇주간날씨 —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0(토)	12/1(일)	2(월)	3(화)	4(수)	5(목)
날 씨						
최저/최고	1/11	2/9	1/8	1/10	1/11	2/10

광주·전남 주말부터 추위 풀린다

광주·전남지역에 10㎝ 안팎의 많은 눈이 쏟아지며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주말인 30일부터 추위가 점차 풀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8일 광주, 나주, 함평 등 광주·전남 14개 시군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를 모두 해제했다.

전날 밤부터 28일 오전 11시까지 광주 11.7㎝를 최고로 나주 11㎝, 화순 10.5㎝, 함평 6㎝ 등 광주·전남지역에 10㎝ 안팎의 눈이 내렸다. 기상청은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도로 춥겠으며, 산발적으로 눈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했다.

주말인 30일부터는 최저기온이 평년(영하 5도~7도) 수준을 회복하며 추위도 점차 풀리겠고, 다음달 6일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은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또다시 추워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5·18비하 '일베' 회원 "잘못했다" 사과

5·18단체 "그런 사실 없다" 강력 반발

'일간 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갓 스무 살이 된 일베 회원이 고개를 숙이며 반성했다.

그러나 이 회원 변호인은 5·18 유가족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고 밝혔다가 5·18단체 관계자들이 이를 부정해 논란이 됐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장재용 판사는 28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관할위반 신청을 했다. 자신이 대구에 거주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이 인터넷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광주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인터넷 범죄의 특성상 행위 지역에는 피해지역도 포함이 된다며 피해자가 광주에서 거주하는 점을 들어 재판이 광주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의견을 받아 다음달 12일 오후 2시 관할위반 여부를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던 A씨는 취재 요청을 거부했으며, 대신 A씨의 변호인이 "A씨가 나이가 어려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을 했다"며 사과하면서 "5·18 유가족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사과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과' 얘기를 전해들은 5·18 단체 관련자들은 A씨가 사과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5·18 단체 관계자는 "5·18 관련자와 유가족 어느 누구에게도 A씨가 사과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A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법원 "조선대 개방이사 아닌 일반이사 선임 잘못"

광주지법, 신임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결원이사를 개방이사 대신 일반이사로 충원한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교육부의 이사 승인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수석부장판사 박병칠)는 28일 조선대 신임이사로 선임된 이정남 이사에 대해 현직 이사 등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원이사 발생시 사립학교법에 의해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이사회의 질의에 대해서도 교육부장관이 개방이사 선임을 해야 한다고 회신한 점을 중시해 일반이사로 선임된 신임이사가 직무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이사회가 개방이사가 아닌 (일반)이사를 먼저 선임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개방이사 후보자를 추천한 이상 개방이사를 우선적으로 선임함에 있어 특별한 장애 사유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정남 이사를 교육부장관이 취임 승인할 경우, 이사 선임은 물론 사업 전반에 관한 이사회 결정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이유를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김장·고추장 짜지않게 담그려면?

제조 공정 소금량 줄이고 절인 배추는 잘 씻어내야

고추장·쌈장·배추김치 등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자리가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야구르트 대강당에서 소스류, 조미김, 면류, 등 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낮추는 방안을 설명하는 '2013년 가공식품 나트륨 저감화 가이드라인 보고회'를 가졌다.

이 같은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낮추려면 식품제조 공정에서부터 소금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김치는 절인 뒤 씻을 때 최대한 잘 씻어내야 한다. /연합뉴스

'1차 인혁당 사건' 48년만에 재심서 무죄

사상 최악의 '사법살인'으로 이어진 이른바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96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48년 만이다.

이로써 두 차례의 인혁당 사건에서 이뤄진 위법한 수사와 재판이 뒤늦게나마 모두 바로잡히게 됐다.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가운데는 나중에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사형이 집행된 도예종(1924~1975)씨도 포함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8일 1차 인혁당 사건 때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도씨 등 9명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당시 국회 조사자료 등을 볼 때 인혁당이 강령을 가진 구체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황칠나라
DENDRO-PANAX
소자본 투자 / 안정적인 고소득 창출
황칠나라 식당모집
061 864 5788
황칠 전문 판매점과 더불어
기존식당에서 황칠제품을 활용하여
신매뉴 개발을 통한 고소득 창출
www.황칠나라.kr

명품황칠요리
황칠(愛)비법
황칠(愛)비법 진액은 식품첨가용 입니다.
파우치 형태로 제작되어 쉽게 식품에 첨가할 수 있으며,
특히 육류나 어류 및 장류의 잡내를 없애주며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맛과 영양
어느것도 놓칠 수 없는 황칠나라만의 고집!!!

황칠다담(주)
전남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651-3